자유로운 날갯짓에 불어넣은 간절한 염원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⑩ 관세음의 메신저, 청조(靑鳥)

아동문학가 모리스 마텔테를링크(1862~1949)의 대표작인 〈파랑새〉는 틸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는 내용을 다룬 동화집이다. 두 남매는 행복의 표상인 파랑새를 찾아 수많은 세계와 인물들을 만났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기른 비둘기가 그렇게 원하던 파랑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처럼 서양문화 속 파랑새는 행복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는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확인된다. 우리의 불교부터 유교, 도교에 이르기까지, 파랑새에 대한 관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조(靑鳥)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동양문화 속 파랑새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믿음과 약속을 의미하는 청조

그리스에는 세이렌(Siren)과 하피(Harpy)가, 불교에는 가릉빈가(迦陵頻伽)와 공명조(共命鳥)라는 새가 등장한다. 문화권은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새들의 특징은 몸은 새, 얼굴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인면조(人面鳥)라는 점이다. 인면조가 여러 문화권에 등장하는 현상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가 인간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양문화 속 청조가 인면조로 표현되는 것이 주목된다. 이를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민화(民畵)로 표현되는 문자도(文字圖)이다. 문자와 그림이 조화를 이룬 문자도는 본디 중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건 조선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문자도를 제작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었다. 옛사람들은 문자에 주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문자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표현한 유교문자도(儒敎文字圖), 혹은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여덟 덕목에 맞는 다양한 도상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글자는 '믿을 신(信)' 자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믿을 신' 자를 사람[人]과 말[言]이 모여 이룬 회의자로 풀이하며, 이는 사람이 말로 한 약속을 거짓 없이 지키는 것을 뜻한다. 즉 믿음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와 올바른 말, 규칙, 언약이라 할 수 있다. 믿음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자도 중 신(信) 자(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수월관음도(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수월관음도의 청조(부분).

사람 얼굴의 파랑새, 東 문자도로 표현
'信' 자에 조형성 · 안정감 돋보이게 담겨
관세음보살도서 절벽 위 정병 사이 등장
관음보살 화신, 희소식과 신뢰 상징으로

신 자를 자세히 보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자의 긴 획 부분을 나뭇가지와 새로 처리했다. 이와 같은 구성 요소는 현대미술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형성과 안정감, 창의력이 돋보인다. 이 그림에서 1획과 3획의 두 마리 새 가운데 1획에 해당하는 새가 인면조 도상으로 표현되는 청조다.

그렇다면 동양에서 청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이 청조는 현실 속의 조류가 아니라 동양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이다. 〈산해경(山海經)〉 '대황서경(大荒西經)'에는 삼위산(三危山)라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곳은 예로부터 신선들이 머무른 신령스러운 장소라고 한다.

이 산에는 삼청조(三靑鳥)라는 3마리 새가 살고 있으며, 그 이름은 각각 대려(大鷅), 소려(小鷅), 청조(靑鳥)라고 한다. 청조는 예부터 믿음과 약속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중국 곤륜산(崑崙山)에 산다는 여신 서왕모(西王母)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중국 한나라 7대 황제인 한무제(漢武帝) 이야기가 담긴 〈한무고사(漢武故事)〉에 나온다.

어느 날, 생일을 맞은 한무제는 잔치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새가 서쪽에서 날아오더니 이내 한무제의 곁으로 다가왔다. 새를 자세히 살펴보니 목에 서신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무제는 당시 재상이었던 동방삭(東方朔)에게 물었다. 동방삭은 새와 목걸이를 살피더니 웃으면서 "이 새는 바로 서왕모가 기르는 푸른 난새인데, 서왕모께서 폐하에게 축수하러 오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고사 내용처럼 문자도에 표현된 청조를 살펴보면 목걸이에 '왕모소식(王母消息)'이라는 단어가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때문인지 청조는 여러 문학작품 속에서 약속과 만남을 뜻하는 소재로 자주 사용됐다. 중국 당나라 최고의 시인 이백(李白)은 만남과 그리움의 감정을 노래한 '상봉행(相逢行)'이란 시에서 "저녁 비가 오는 것이 어찌 그리 더딘지, 바라건대 삼청조가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시 전해주기를"이라고 읊었다고 전한다.

관세음의 메신저, 청조

청조는 불교미술에서도 확인된다. 그 사례는 고난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도(觀世音菩薩圖)다. 관세음보살이 머문다는 보타락가산(普陀落伽山)은 온갖 진귀한 보석과 함께 해수면과 절벽, 대나무로 배경을 이룬다. 여기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재동자(善財童子)와 용왕(龍王), 위태천(韋馱天) 등 호법신중이 함께 등장하는데 여기서 청조는 절벽 위 정병(淨甁) 사이에 자그맣게 표현된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과 파랑새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 아직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금강산(金剛山) 일대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설화가 확인된다.

금강산 근처 금란굴(金蘭窟)은 예로부터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위해 정성 들여 불공을 드리는 수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곳이었다. 그러나 금란굴에 머무시는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형상을 보살의 몸이 아닌 여러 화신(化身)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 바로 이 금란굴에서는 푸른 빛깔을 지닌 청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청조를 본다 해도 이 새가 관세음보살인지 깨닫지 못했으며, 진정 깨끗한 마음을 지닌 참수행자만이 새를 보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이 설화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서왕모의 메신저 청조 이야기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일까? 물론 〈산해경〉은 불교 이전부터 중국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서왕모 이야기가 더욱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양 문화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서왕모와 청조가 관세음보살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참신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면조 도상의 청조는 서양에서는 세이렌과 하피로, 불교에서는 가릉빈가와 공명조로 불리는 등 다양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이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새에게 인간의 간절한 염원을 투영한 건 아닐까? 환상 속 존재인 인면조는 고대부터 동서양을 아우르며 믿음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



김용덕 작가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회 주 상 진
원 로 도 암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원 주 일 겸
대 중 일 주, 효 성, 일 준
일 월, 수 담, 수 근

종무소 직원
총무실장 정태우(일소)
관리과장 최진호(무착)
경리계장 성진희(소담)
사무주임 신다은(소명)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효 능
류기석
최종남
허대형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현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